

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5. 11. 27(금)	
		작 성 문 의	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문화체육정책과장 권수진 (Tel. 044-200-2328) 사무관 김유미 (Tel. 044-200-2330)
<b>11.27(금) 11시(행사종료) 이후 사용</b>			

## 국무총리, 미래의 성장엔진 ‘문화창조융합센터’ 찾아

-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센터 방문, “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근거지”
- 개발현장 직접 참관하고, 민간기업 등 관계자들의 현장의견도 청취
- 황 총리, “문화창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”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 27일(금) 오전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들의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현장을 살펴보았다.
  - 이번 방문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이루어졌으며,
  -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첫 단계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콘텐츠 발굴의 전진기지로서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였고,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공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.
- 강명신 문화창조융합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황 총리는 “문화콘텐츠산업은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가 결합된 우리나라 국가 미래의 성장엔진”이자,

- 우리 사회의 최우선과제인 “양질의 청년 일자리”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핵심 근거지라고 밝히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- 이와 함께 황 총리는 “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

- 영상, 음악, 게임 등 콘텐츠 장르와 기술간 장벽을 허물고,
- 기업 등 민간 부문과, 정부,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역량을 결집한 문화창조융합센터와 같은 세계적 선도 모델을 만들어 실현해 나가고 있다”고 밝히면서,
- 앞으로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기획 차원을 넘어 제작, 소비의 영역까지 확장한 “문화창조 생태계”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.

- 황 총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부처와 문화창조융합센터 관계자들에게 “문화창조융합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발전해 나가는 경제 재도약의 구심체”라고 강조하면서,

- 문체부와 문화창조융합센터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“대한민국의 성공신화”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.

- 이날 모션 스튜디오, 크래프트 랩 등과 같은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창작지원시설을 둘러본 황 총리는 창작자들이 시설을 이용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참관한 후 센터를 이용하는 창작자와 대화를 나누었다.

- 앞으로도 황 총리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.